

건강관리 성공사례담
 지난 85년 11월 5일
 健協경기도 지부에서
 세포진검사를 받고, 수술에
 성공한 강음전씨의
 건강관리 성공사례담을
 지상에 공개한다.



강음전씨의 수술을 담당 한
 원자력병원 이제호박사

“健協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사
 의 중요성을 직접느낀
 강음전씨.



지난날을 회상하는 김숙
 일 주임병리사(경기도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뿐이다. 물질만능 사회라는 현대도 사람의 생명이 위협하면 아무리 많은 물량공세를 펴도 소용이 없다.

지난 85년 11월 5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세포진(자궁암) 검사를 받고 병상투병생활을 한 강음전씨(여·55세 수원시 신흥동 116-43)의 건강관리 성공사례담을 직접 취재하여 지상에 공개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싶다. <편집자주>

저희 가족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었어요.

『지난시절 저희 전가족이 슬픔과 비애에 잠겨 눈물로 보내던 시간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한 견협은 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준 은인입니다.』

이말은 강음전씨와의 인터뷰도중 강음전씨의 눈에 이슬이 맺히면서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엄한가 하는 것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시 되는 것이다.

1984년 여름부터 몸에 이상이 있었어요.

강음전씨는 부군 이용구씨(57세. 운수사업)와 함께 2남 1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비록 넉넉치 못한

생활이지만 항상 웃음과 기쁨이 충만되는 한국전통의 가정주부로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84년 여름부터 한달에 한번씩 관계한 후에는 출혈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복통이 오면서, 냉이 서리기 시작하여 혼자서 가슴을 앓고있었다.

『이 나이에 창피함도 있고, 또 병원에 가보자니 그렇구 해서, 근처 약국에서 약사에게 설명하였더니 약을 주더군요. 그래서 약을 복용했더니, 며칠동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다나았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난날을 기억해내는 강음전씨,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조금은 후회하는 것 같았다.

제 친구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그런데 별 이상이 없다가 85년 봄부터 갑자기 온몸에 기력이 없구, 가끔가다 머리도 어지럽고, 체중이 쏙

“ 1984년 여름부터 몸에 이상이 있었어요. 한달에 한번씩 관계한 후에는 출혈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복통이 오면서, 냉이 서리기 시작하여 혼자서 가슴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다 복용했더니 며칠 동안은 별 이상이 없더군요 ”

빠지고, 출혈이 심했어요. 그래 하두 이상해서, 수원시 영동시장에서 장사



◀ 친구가 한국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자궁암 검사를 하니 그 곳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더군요.

를 하는 제 친구에게 찾아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

“ 그런데 별 이상이 없다가 85년 봄부터 갑자기 온몸에 기력이 없구, 가끔가다 머리도 어지럽고, 체중이 쏙 빠지고, 출혈이 심했어요. 그래 하두 이상해서 수원시 영등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제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라고 권유하더군요. 그친구는 자기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암에 대해 아주 많이 알아요.”

구는 자기 남편이 암으로 몇년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서 암에 대해서는 증세나 치료방법등을 아주 잘알아요. 그 친구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자궁암 검사를 하니 그곳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잖아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검사를 받게 된 동기를 강음전씨는 쓸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해주었다.

검사후, 통보를 받은 날 부터는 저희 가족은 슬픔과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읍니다.

옆에 같이 한 부군 이용구씨는 지난 날 슬픈 가장으로서의 고민을 회상하면서 입을 열었다.

『 저희 집사람에게 너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있어 항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읍니다. 저분이(김숙일 주임병리사) 자주 들려주

면서 집사람의 건강을 체크 해주셔서 진정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 할 수가 없군요. 저희 가족은 집사람이 처음 자궁암이라는 것을 알았을때 수술전까지는 전가족이 본인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때는 전가족이 걱정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었죠. 좋은 방법을 찾으려구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85년11월 5일 검사를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때 저분이(김숙일 주임병리사) 직접 검사결과를 가지고 저희집에 오셨지요.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전문적인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더군요. 그래 나는 놀랐습니다. 집사람이 무슨 큰 병이나 걸린 줄 알구요. 그래서 저분이(김숙일 주임병리사) 자궁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에 가슴이 철렁하더군요.』라고 처음의 이야기를 하는 부군 이용구씨.

협회에서의 검사결과는 양성반응으로서 위험한 단계였었지요.

당시 강음전씨의 세포진검사를 한 김숙일 주임병리사는 이렇게 검사결과를 말한다. 『저희 세포진검사 결과는 class 5로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매우 위험한 시기죠. 이시기를 지나면 수술을 해도 성공율이 적어진다는 판독의사선생님(이인성 박사)의 말도 있고해서 제가 직접 강음전씨택을

“저희 세포진 검사결과는 Class 5로 양성반응이 나왔어요. 매우 위험한 시기죠. 이시기를 지나면

수술을 해도 성공율이 적어진다는 판독의사선생님(이인성 박사)의 말도 있고해서, 제가 직접 강음전씨택을 방문해서, 현재의 강음전씨의 상태를 설명하고 종합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는 김숙일 주임병리사 〃

방문하여, 현재 강음전씨의 상태를 설명하고, 인천의 모병원을 소개시켜드렸지요』 당시의 검사결과를 이야기하는 김숙일주임병리사는 끝까지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투철한 책임감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자는 느낄수가 있었다.

서울 원자력병원으로 옮기다.

『인천의 모병원에서는 좀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울 원자력병원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원자력병원에서 종합진찰을 받기로 하고 11월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정밀검사를 받았었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인 강음전씨를 바라보는 부군 이용구씨의 눈에서는 따뜻한 부부의 정이 넘치는 것 같았다.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래 검사결과가 11월24일 나온다기에 24일 찾아갔더니 본인(강음전씨)을 앞에두고 원자력병원 의사선생님(이제호 박사)이 “자궁암 2기인데 수술이나 방사선치료중 한가지를 선택” 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도 하고, 여러 동네 사람



◀「자궁암은 성(性) 관 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여자라면 나이를 막론하 고, 6개월에 한번씩 정 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제호 박사는 정기적인 건강검사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들이 선택할 것도 없으니 수술을 하 라고 하잖습니까. 그래 수술을 결 정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군 이용 구씨. “현재 이곳은(수원시 신평동 일 대) 암환자가 한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신경을 썼다고 하더군요.” 라고 옆에있던 김 속일 주임병리사가 말을 거든다.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해야 됩니다.

당시 강음전씨를 진찰한 원자력 병 원 4 과과장 이제호박사는 이렇게 말 한다. 『처음 강음전씨가 와서 이야기 를 하여,듣고진찰했습니다.그래서조 직검사를 해보니 class 2로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었지요. 일명 침류성암 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것은 일

단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그랬더니 환자측에서 수술을 원하시길래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종합진단후 11월25 일입원하고, 27일로 수술일자를 결정했 었습니다.』처음 강음전씨가 찾아왔을때 의 상황과 검사결과를 말하는 이제호 박사는, 날카로우면서도, 예리함이 었 보였다.

4 시간 동안 수술대에 누워 있었 습니다.

『그래서 11월27일 12시30분에 집사 람이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 가더군요. 장장 4시간동안에 걸쳐 수 술을 했습니다. 그 4시간동안 저희 전가족은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답답하였습니다. 그저 집사 람의 수술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었죠』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부군 이용구씨는 생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일이라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당시를 슬회한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만, 조기 발견, 조기치료가 아쉽더군요.」

『수술은 매우 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일찍 발견 되었기 때문에 (65%의 성공율) 성공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허나 강음전씨 같은 경우는 처음 이상이 있었던 84년에 진찰을 받았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방치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새삼스레 강조해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궁암같은 경우 성(性)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여자라면 나이를 막론하고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강음전씨같은 위험한 상태까지의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제호박사. 어떤 한 환자를 집도한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 계몽과 건강관리에 대하여 역설을 하는 모습은 어떤 철학자적인 인술의 사도로까지 느끼게 해주었다.

12월13일 퇴원하는 날

『그날은 날씨가 매우 쌀쌀했지만, 저에게는 따뜻한 봄날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바로 퇴원하는 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저희 온가족이 밝게 웃음을 지으면서 저를 맞

이해주니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강음전씨는 아직도 당시의 기쁨이 채 덜 가신 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퇴원 후 일주일에 두번, 보름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의 위험도 생각해야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이제호박사) 말씀하셨기에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생활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연탄불도 같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저의 본연의 임무로 다시 돌아와서 매우 기뻐요.』 라고 말하는 강음전씨는, 세월의 흐름속에서 사람의 육체가 변화를 한다지만 본인은 새로운 육체를 부여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저같이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요.

『저같은 경우에는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때 검사를 받았다면 수술까지 하여야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여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기전에 건강할때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받아보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특히 자궁암검사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되요』 지난날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자신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강음전씨. 정기검사의 중요성을 느낀 사람인것 같았다.

(<오일민 기자>)